

# 코로나19 대응 위한 긴급예산 심의

### 전주시의회, 10일부터 임시회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시민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4일간 임시회를 열고 전주시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3월 임시회는 당초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의를 앞당겨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제출한 주요 예산은 소상공인 상생(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방역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 방역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다.

김현덕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방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시의회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2월 28일 전주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동물원, 스라소니에 새 보금자리 제공한다

### 기존보다 7배 확장된 자연친화형 외부 방사장 형태 '맹수의 숲 조성사업' 추진

전주동물원에서 생활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스라소니가 7배 넓어진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전주동물원은 오는 6월까지 그간 좁은 실내 방사장에서 지내왔던 스라소니에게 야생과 유사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할 '맹수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표범, 스라소니, 재규어가 생활해왔던 기존 실내 방사장을 허물고, 기존보다 7배 확장된 외부 방사장 형태의 '맹수의 숲'을 조성, 스라소니의 보금자리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방사장 안에는 음수대와 바위, 놀이목 등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

며진다. 또한 외부 방사장 2개는 통로로 연결해 맹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순환형 행동풍부화 프로그램도 적용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한 방향에서만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던 관람방식에서 벗어나 2개의 방사장을 앞뒤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맹수의 숲'이 조성되면 스라소니가 기존의 좁고 폐쇄적인 실내 방사장 환경에서 벗어나 넓고 확 트인 외부 방사장에서 자유롭게 나무타기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망토원숭이사의 리모델링 공사도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시는 기존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행동풍부화 시설을 추가해 망토원숭이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완료된 전주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 그간 동물들이 행복할 동물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자·호랑이사 △큰물새장 △늑대사 △곰사 △호랑이사·원숭이사 등의 시설을 개선해 왔다. /김윤상 기자

# 김중기 전북대 교수, 전주시 농정 총괄자문관 위촉

### 전주 먹거리·농업·축산정책

### 기획·자문 등 농업정책 진두지휘

전주시가 시민들의 먹거리 주권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전주푸드 등 농업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농정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전북형 농업정책 분야의 권위자인 김중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를 전주시 농정 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정 총괄자문관을 위촉한 것은 농업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주의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중기 농정 총괄자문관은 일본 규슈대학에서 농정경제학을 전공하고, 정식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북 삼라농정의 '전북생생'을 만들기를 기획, 제안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제안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농정 총괄자문관은 주 1일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는 임기 동안 △전주의 먹거리 및 농업·축산 정책에 대한 기획과 자문, 사전 검토를 맡는 등 전주시 농업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시는 향후 먹거리정책과 농정정책 추진 시 농정 총괄자문관 주재의 관련



전주시는 전북형 농업정책 분야의 권위자인 김중기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를 전주시 농정 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부서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정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농정 총괄자문관의 위촉을 통해 다양한 농업발전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수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업분야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아 농업정책의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기 전주시 농정 총괄자문관은 "농업의 문제를 정책 영역에서만 단순히 풀어나가려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사회 전체적

인 차원에서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철학을 갖고 전주시 농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 전략을 통해 먹거리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농정 총괄자문관과 함께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로 행복한 도시, 독립경제도시 전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코로나19 상황실에 따뜻한 응원 이어져

### 격무에 지친 근무자들 위해 곳곳에서 커피·샌드위치 등 보내와

코로나19로 격무에 지친 전주시 공무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훈훈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전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월 29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 전주 활짝핀 유치원은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상황실과 전주시보건소, 덕진 선별진료소에 샌드위치, 음료수, 딸기 등 130여 명

분의 간식을 전달했다.

앞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때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는 전주시민입니다"고 적힌 편지와 함께 쌍화탕과 견과류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상황실에 전달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보건소에는 드립커피 100개와 단팥빵 100개, 마카롱 50개, 치킨 20마리 등 시민들의 응원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 총괄상황실에는 또 지난 3일과 4일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적힌 초밥 20세트가 배달

됐으며, 4일에는 "밤낮으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메모가 적힌 마카롱 5박스도 전해지기도 했다.

격무에 지친 상황실 근무자들을 위해 꾸준히 커피를 보내주는 커피전문점들도 있다. 시청 인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지난 26일부터 매일 전주시 총괄대책본부 상황실에 커피 30잔씩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진북동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한 시민은 지난 25일부터 매일 밤 9시 30분마다 덕진진료실에 따뜻한 인사와 함께 커피를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주시 코로나19 상황실이 가동된 이후 시민들은 현재까지 통닭 70여 마리와 떡 10여 박스, 피자 20여 판, 꿀 10여 박스, 커피, 샌드위치, 만두, 죽발, 비타민 음료 등을 후원해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의견 제안할 시민참여단 모집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숲으로 재생하기 위해 전문가자문단에 이어 시민참여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에는 기존 자문단의 전문성과 함께 실제 이용자 시민들의 다양한 지혜가 더해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재생하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시민참여단'을 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1963명 이상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오는 9월 기본구상을 마칠 때까지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재생주제별 시민토론회와 전문가와 함께 합동토론회 등 종합경기장을 위한 기본구상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serytime@

korea.kr 또는 hoomy3546@korea.kr) 또는 팩스(063-281-2625)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에 보다 참신하고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 시민의 숲 1963 게시판에서 참여 가능하며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시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시상금도 수여한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